

하루를 시작하며



고 춘 옥
시인

우리 농업이 시장 경제 측면에서만 봤을 때 답이 없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대규모 농지를 소유하거나 임대해서 농사를 지을 때는 약간의 경쟁력도 운에 의지해 돈을 벌 수도 있겠지만요. 유통을 같이한다든지, 후대에 물려줄 수 있는 자산 개념으로 보는 것이죠. 물론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어요. 열심히 하면. 그러나 사업 밀전을 마련하거나 큰돈을 마련하는 것은 어렵지요. 전업농 소농인 경우는 두 잡(two job)이 필수입니다.

IT산업이 발달하고 있는 이 때에 농

IT시대에 최고농업기술명인 김형신과

업의 갈 길은 뉘냐고 묻는다면요?

소비자하고 소통이죠. 소비자들이 자기의 고객이 되는 거죠. 곧 '고객은 상품이다'는 것이죠. 자신이 생산한 것을 직거래하면 부가가치가 훨씬 높죠. 왜냐하면 요즘 70%가 인건비 유통비 물류비 기타 잡비에 들어가고 남는 것은 30%밖에 안 되는데 유통비가 빠지니까 50%가 남는다는 거죠.

도에서 얘기하는 유통직물 같은 경우는 드론으로 수치를 예측하고 학습 데이터를 구축한다는 데 어떤 게 달라진다고 볼 수 있죠?

예측이 가능하니, 가격을 생산자가 주도할 수 있다는 거지요. 수요와 공급이 약간만 틀려도 가격이 폭등하거나 폭락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는 것이 농산물의 한 축이거든요. 양적 성장은 드론 같은 것으로 대규모 생산을 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고, 질적

성장은 고품질이지만 경쟁력 있는 안 전성이 담보된 농산물이 돼야 하는데도의 정책은 무조건 고품질이어야 한다고 보니까 죄 없는 농민들이 하우스 시설을 해서 빛만 지고 있는 거지요. 소비자들이 당도가 최하 15°C 이상 되는 감귤만 찾으니가 노지에서는 가능성이 없잖아요. 결국 시설업자만 살고 실질적으로 그 안에서 일하는 농민들은 개 죽음이라는 거지.

이 시대에 농민의 수가 줄어든다고 해서 문제 될 것은 없잖아요?

전혀 없죠. 외국에서 손쉽게 싸고 좋은 농산물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 버리니까. 가난했던 시절에는 식량 안보 다 뭐다 하면서 걱정이 많았지만 이제는 IT니, 반도체니 해서 돈 많이 벌고 있잖아요. 그렇게 번 돈을 국민들에게 돌려줘야 하는데 회사만 배 불리니까 문제라는 거지요. 각 지역에 경쟁력 있는 농산

물을 찾아 키워줘야 하는데 제주는 감귤을, 육지는 쌀을 생명 산업이라 하면서 그쪽만 편중하는 것도 문제지.

농업정책 자체의 다각적이지 못한 편파적인 운영이 문제라는 거네요?

절만 운영하면 농촌도 도시도 서로가 상생을 할 수 있는데 경제적인 관점으로만 보니까 문제지요. 우리가 공용 직 불균만 논의할 게 아니라 농촌의 기간 산업을 해 놓아야 한다고요. 수도 전기 통신 하수를 뽑을 수 있는 예산을 계획해야지. 외국에는 개인 직불제 안 해요. 생산 직불제만 하지. 농사 짓는다고 다 돈 주는 게 아니라 농산품을 팔아서 결손이 생겼을 때 그 차액을 보전해 준다는 거지. 도에서 정책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사무실에만 앉아서 39도에 사람들이 쓰러지는 거 경험도 안 해보고 어떻게 농업을 논할 수가 있나 이 말이에요. 전문기도 없고.

사설

합동참배 8년, '동백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대한민국 현대사 최대 비극인 4·3으로 수 십년 이어진 반목을 끝내고, 화해와 상생을 도모하는 유족회·경우회 합동참배가 벌써 8년째다. 4·3 당시 이념의 굴레로 피해자와 가해자로 갈린 고통의 세월을 치유하고, 쓰러져간 모든 희생자들을 위해 두 손 맞잡은 양측의 행보는 첫 참배부터 도민들 공감을 받기에 충분했다. 올해는 군·경 현직 수뇌부까지 처음 참가해 그 의미를 더했다.

제주4·3희생자유족회와 도재향경우회는 2일 신산공원, 4·3평화공원에서 '화해와 상생선언 8주년 기념 합동참배'를 거행했다. 두 단체가 4·3사건 이후 65년간 갈등의 세월을 넘기기 위해 2013년 8월 2일 조건없는 화해와 상생의 가치로 도민화합에 앞장서기로 결의하며 합동참배를 한 지 여덟번째를 맞은 것이다. 올해 합동참배가 남다른 이유는 당연히 도내 현직 군·경 수뇌부 참석에 있다. 도 부지사, 도의장, 도교

육감과 유족회·경우회 전·현 회장 외에 제주경찰청장, 해병대 제9여단장, 해군 제7기동전단장 등 도내 군·경 최고 책임자 모두 참가한 것이다. '평화의 동백꽃이 활짝 피었습니다'라는 합동참배 주제처럼 도민 모두 4·3의 피해자라는 인식과 과거가 아닌 화해와 상생의 미래를 만들어 나갈 공감대 형성에 새 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다.

제주4·3은 '특별법 전부 개정', 불법 군사·일반재판 수행인들의 명예회복 등 상당한 진전을 이룬 올해다. 여기에 군·경 최고 지도부의 합동참배까지 더해지면 선언적 수준의 화해·상생의 길 모색서 한 발 더 나아간 움직임이 필요한 상황이다.

4·3유족회와 경우회는 올해 합동참배를 계기로 열린 마음을 더 열어 연중 활짝 핀 동백꽃을 보여 줄 새 행보에 나서야 한다. 지역 사회를 위한 '합동 봉사'는 한 예로 추천한다.

열린마당

변이 바이러스에도 해답은 같다



강 경 림
코로나방역대응추진단 방역총괄과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발견된 후 변이 바이러스가 발생하기도 최근인 듯한데 빠르고 다양하게 진화하고 있어 긴장의 연속이다. 변이 바이러스는 감염력, 병원성, 면역회피 등의 정도에 따라 분류한다. 변이 바이러스는 알파(α), 베타(β), 감마(γ), 델타(δ), 람다(λ)가 있으며 알파형 영국 바이러스, 베타형은 남아공 바이러스, 감마형은 브라질 바이러스, 델타형은 인도 바이러스로 불리고 있다. 세계보건기구는 특정 지역에 대한 낙인 방지를 위해 그리스 문자로 활용하고 있다.

코로나 확진자는 주로 사회활동이 활발한 계층, 백신접종을 하지 않는 계층, 방역수칙을 어기는 곳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변이는 전세계 곳곳에서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늘어나는 이

유가 아마도 오랜 기간 거리두기로 인한 방식, 여름 휴가철, 백신 접종자 증가, 아니면 코로나의 위험성은 그대로인데 면역력이 떨어져 바이러스가 쉽게 오는 것은 아닌가 생각도 해본다.

백신 접종과 방역수칙 준수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진화한 변이가 더 발생하기 전에 백신 접종을 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하고 있으며, 전파력이 높은 델타형 변이도 백신의 효과가 있다는 연구들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신규 확진자 중 델타형 바이러스 감염 인원이 늘고 있어 우리의 마음은 불안하기만 하다. 이에 유일한 대안인 백신은 기회가 왔을 때 접종해야 한다. 물론 부작용에 대한 걱정도 있겠지만 가장 합리적인 방역 지침과 백신 접종 지침을 잘 따르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방역 수칙 준수에 대한 경계심이 해이한 곳에서 발생하고 있는만큼 개인방역을 위한 도민 의식 개선은 각자의 적극적인 협력없이는 절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이렇듯 필수품 마스크를 벗는 일은 없어야 하겠고, 변이 바이러스에도 해답은 같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손 잘 씻기와 거리두기의 방역수칙을 잘 지키는 것이다.

* '오피니언' 변의 외부필자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뉴스-in

원 지사 사임, 제주 경제계 입장 대동소이

제주상의-경총 임장문 발표

○...제주지역 두 경제단체가 원희룡 지사의 대선 출마를 위한 지지 사석 중도 사임과 관련해 약속이나 한듯 대동소이한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

제주상공회의소와 제주경총은 각각 2일과 3일 "원 지사의 뜻을 존중한다"며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에서 경제위기 극복에 주력하고 카본프리 아일랜드 프로젝트를 추진, 4차산업혁명에 대비한 미래산업과 인재육성 등의 성과를 냈다"고 강조.

공향과 관련해서도 각각 "원지사가 제2공항 건설에 강력한 의지를 보여줬다", "2공항 추진이 마무리되지 못해 아쉽다"고 언급. 문미숙기자

학역역량 도움 프로그램 기대

○...지난 1학기 도내 초등학교에서 운영된 정규수업 이후 지도교사가 희망학생 대상 문해·수리력 등을 지도하는 '학역역량 도움 프로그램'이 학력격차 최소화에 기여할 것이라 현장의 높은 기대감.

3일 제주도교육청에 따르면 7월 중 해당 프로그램을 운영 중인 지도교사 478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중간 설문조사 결과 96.9%가 "아이들의 학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

도교육청은 지원이 부족한 부분을 개선·보완하며 2학기에도 지속 운영할 예정. 오은지기자

서귀포시 휴가철 방역 전념

○...서귀포시가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은 가운데 최근 전국적인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상대적으로 방역이 느슨한 휴가지를 중심으로 현장방역에 전념.

시는 오는 5일까지 지정 해수욕장 4곳과 하천 물놀이시설 8곳을 비롯해 갈매밭목관과 자연휴양림 등 관광지 3곳 등을 중심으로 방역현장을 찾아 집중점검할 예정.

김태영 시장은 "코로나19의 확산세 저지와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부서별로 특별방역을 강화한다"며 "특히 관광객과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다"고 강조. 백규탁기자

거리두기 강화에도 방역효과 없으니

8월 들어서도 제주지역 코로나19 상황은 전혀 나아지지 않고 있다. 지난달 19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됐는데도 신규 확진자는 끊이지 않아서다. 가뜰스나 본격 휴가철을 맞아 제주를 찾는 관광객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걱정이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으면서 지역감염에 대한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 7월 한 달간 발생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487명으로 집계됐다. 코로나19 사태를 통틀어 월별 기준 가장 많은 수치를 기록한 것이다. 월별 기준 누적 확진자 수는 채 한달도 되기 전인 지난달 24일 이미 역대 최대 기록을 넘어섰다. 지난달 게스트하우스 등 도내 곳곳에서 집단감염 사례가 계속 이어지면서 코로나19 상황이 크게 악화된 것이다.

문제는 이달에도 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 될 것으로 전망된다는

점이다. 제주를 찾는 관광객이 대거 몰리고 있어서다. 제주도관광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30~31일 이틀간 제주를 찾은 관광객은 각각 4만2783명, 4만6909명이다. 8월 첫날(1일)에도 4만명 가까운 관광객이 제주를 찾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여행을 미뤘던 사람들이 제주로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지역 코로나19가 진정되지 않아 큰일이다. 거리두기가 3단계로 강화한지 보름이 넘었으나 방역효과를 전혀 보지 못하고 있어 더욱 그렇다. 이런 상황에서 제주를 찾는 관광객 중에서 많은 확진자가 나오고 있다. 실제로 지난달 제주에서 발생한 확진자 가운데 관광객은 4명 중 3명인 정도로 적잖아 도민들의 불안감을 커질 수밖에 없다. 때문에 제주를 방문하는 관광객은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반드시 받도록 하는 등 보다 강력한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

감사의 말씀
이번 저희 아버지 신천강공 영호(향년 77세) 상지에 바쁘신 중에도 정중하게 조의를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마음속 깊이 감사 드립니다. 일일이 찾아뵙고 고마운 말씀을 올림이 도리어이나 우선 지면을 빌려 인사를 올립니다.
2021년 8월 4일
부인 문정옥, 아들 강경필, 딸 강주연, 문영란, 최규화, 강영민, 김두철, 김고창, 김길홍

감사의 말씀
이번 저희 어머니 동천임씨 흥빈(향년 92세) 상지에 바쁘신 중에도 정중하게 조의를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마음속 깊이 감사 드립니다. 일일이 찾아뵙고 고마운 말씀을 올림이 도리어이나 우선 지면을 빌려 인사를 올립니다.
2021년 8월 4일
남편 현관, 아들 현명, 딸 현경, 문영란, 최규화, 강영민, 김두철, 김고창, 김길홍

탁월한 선택! 확실한 광고 효과
한라일보 광고문의
750-2828
서귀포지사
732-5552

감공요목
아스미 4, 5년생
당 17.4브릭스 산 1.0인 최고 품질의 아스미는 소득이 월등합니다. 수확량이 많고 해거리가 거의 없으며, 판매 단가가 높습니다. 아스미는 이제 시작단계로서, 그 앞길이 창창합니다. 일본의 품종보호 신청일은 2018년 1월 15일인데, 석파농산은 그 이전에 생산판매허가를 받고 생산한 4.5년생을 판매하므로, 로알티 등 일본격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판매확인서 발급합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많은 문의 바랍니다. 단, 일본의 보호신청 이후에 생산한 1.2년생 묘목을 판매하거나 구입 시는, 바로 법에 걸리겠.

감공 신제품 분양
2022년 봄 출하예정 묘목 분양
만감류
레드향(무독), 천혜향, 황금향, 원터프린스, 제라온(레몬), 한라봉, 탐나는종, 사리향(신동천혜향), 나스미(카라향), 탐맛1호, 명유자, 아마니스
조생
유라조생, 하례조생, 궁천, 오하라베니(궁천베니지), 히로시마 7호, 일남1호, 명자묘목(1000본 이상)
농장위치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리 850-6번지 (평화로 서광주유소에서 모슬포 방향 300M 위치)
종자업등록번호 : 18-2003-20-09
자원증묘
010-2691-1883

백도라지 분말
관심과 사랑 주신에 이룬 성과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약백도라지 분말 100% 목성골
미국식품의약국 SCI A급 등록
현대백화점, 농협 하나마트, 경제통상진흥원판매장 판매
대한민국 최고농업기술명인 / 2009 백도라지 명인
전화 064-783-8987, 010-5755-8987, 상담 010-2691-9316
홈페이지 : http://www.baekdoraji.com
[주산지] 선율2리 용암동굴계 거문오름 일대지역
한기림JK약백도라지연구소

방수 단열 우레탄 우레아
방수전문건설업 석주개발
712-3644, 782-3644, 010-4690-3636